

# 중국, Su-27에 이어 MiG-31 및 航母 도입 추진



**최근** 중국과 일본의 두드러진 군비경쟁은 아시아지역의 긴장고조와 함께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군비경쟁은 域内の 이러한 사정들뿐만아니라 냉전종식 이후 쇠퇴하고 있는 선진국의 방산업체들이 집요하게 시장을 개척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긴장된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Su-27(사진 ▲) 24대를 구입했고,

MiG-31 전투기의 구입도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은 5번째 전술 핵잠수함 등 3척의 잠수함과 신형 프리깃함을 추가 배치했으며, 신형 구축함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해군력 증강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時事週刊誌 <슈피겔>은 11월 6일호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67,500톤급 항공모함 도입건도 논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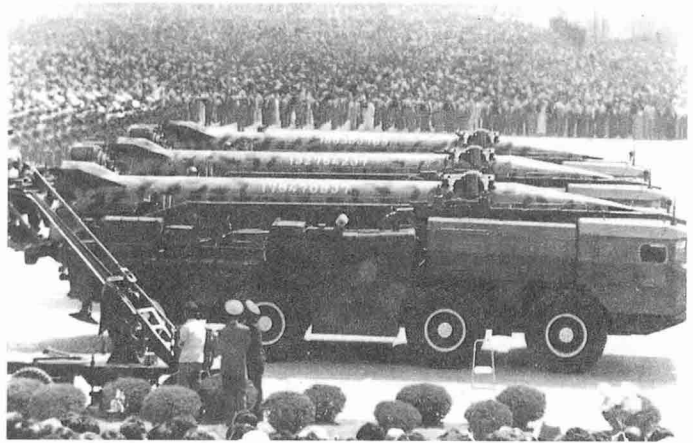
아시아 주요 국가의 1992년 방위비 및 무기 구입

구분	방위비 (億불)	前年對比 신장율(%)	최근 구입 또는 구입예정 신무기
중 국	68	12.1	우크라이나함모, 러시아 Su-27기 24대, MiG-31기 다량, T72M전차 4백40대
북 한	23	2.6	핵무기 개발 의혹
대 만	109	3.4	佛 프리깃함 16척, 美 F16 1백50대, 佛 미라주 전투기 2~3개 대대
싱 가 포 르	25	11.6	美 F16 11대, 방위비를 전체예산 6%까지 증액
말 레 이 시 아	11	12.8	英 프리깃함 2척, 佛 엑조세미사일, 미그29 전투기 30대
태 국	28	13.5	美 F16 제트전투기 18대, C130 수송기 4대
인 도 네 시 아	6	3.2	英 호크전투기 44대
필 리 핀	8	22.0	체코 및 이스라엘 전투기, 이탈리아 훈련기
인 도	68	7.0	핵탑재가능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AGNI)」 성공

# 북한, 해외 무기수출 세계 제7위

**북한** 은 70년대이후 무기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74년부터 89년까지 15년간 총 무기수출액이 45억4천만불에 달하였으며, 이는 같은기간 북한 전체수출액(2백3억6천만불)의 22.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스커드미사일을 처음 수출한 87년에는 무기수출액이 7억7천만불에 이르러, 전체 수출액 15억불 중 51%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무기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무기수출 세계 제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崔聖彬** 박사가 발표한 <北韓연구>誌에 따르면, 북한은 70년대 전반에 본격적인 군수산업 토대를 구축한데 이어, 현재 전차, 자주포, 유도탄, 경비정, 구축함, 잠수함 등을 생산 할수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미 북한은 유도무기의 경우 AT-3 대전차 유도탄과 SA-7 지대공유도탄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旧소련의 스커드B형 미사일을 이집트로부터 도입, 모방생산하는데 성공한바 있다.

항공기의 경우 소련제 MI-2 헬기, MiG-21 전투기, Yak-18 훈련기 등의 조립생산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T-62 전차를 개량한 T-72 전차를 시험생산했으며, 최첨단의 MiG-29 전투기를 생산키 위해 旧소련과 기술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대만, F-16과 Mirage 2000에 이어  
核잠수함 도입 검토

**대만** 은 지난 9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1백50대를 사들이기로 결정한데 이어,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60대의 미라주(Mirage) 2000 전투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만은 프랑스제 핵잠수함인 2천3백85

톤급의 루비스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만의 현지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네덜란드와도 잠수함 수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超電導선박 실험운항 성공

**일본** 은 최근 초전도현상을 이용한 초전도선박의 처녀운항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지난 2월 미쓰비시중공업 고베조선소에서 건조된 「야마토 1호」는 기존 선박이 스크류 추진방식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6개의 엔진 튜브에 설치된 초전도코일에 액체 헬륨을 사용, 마이너스 452F에서 초전도현상을 유도해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따라 추진력을 얻는다.

일본은 70년대 들어 초전도기술 개발에 주력해,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야마토 1호의 시험운항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아직 풀어가야할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전도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2천W 용량의 디젤발전 냉각시스템이 필요하고, 값비싼 액화헬륨이 요구된다.

또한 자석동력장치가 전체 배무게의 70% 정도로, 일반 스크류시스템의 10%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겁다. 에너지효율면에서도 일반 화물선의 60%, 수중익선의 22%에 크게 못미치는 4%를 기록했다.